

노 재 승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작품연구논문

조합기법이 도입된 현대조각의 이미지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7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황 남 진

조합기법이 도입된 현대조각의 이미지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노 재 승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황 남 진

인 준 서

황남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2007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논문 개요

미술사를 보면 인간은 항상 자연의 근원적 형상을 탐구해왔다. 이에 반해 르네상스 이후에 발전한 근대 과학은, 자연은 소립자와 같이 독립된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해와 달, 식물과 동물, 바위와 인간 등 소립자의 유기적인 배열에 따라 자연의 형상은 모두 상이하다.

탄소 원자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배열되었는가에 따라 석탄과 다이아몬드로 구별되듯이 자연은 결코 개별적 요소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서로 다른 개체가 모여 조합을 이룰 때는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는 것이 자연의 본성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자연의 유기적 본성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조형 작업에서 재료-개체들을 작가의 의도에 따라 조직해 작품-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조형성이 새로운 개념으로 무한히 확산될 수 있음에 주목해 왔다.

본 논문에 제시된 2006년에 창작된 본인의 작품들은 모두 철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 판을 조각내고 그 얇은 면을 가진 개체들의 조합을 통하여 자연의 조형적 형상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즉 조각조각의 개체들을 용접을 통해 하나의 조합을 하면서 자연의 유기적 질서를 조형적으로 탐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달리말해 본인의 작품은 자연의 유기적 속성을 조합기법이 도입된 현대 조각의 이미지로 조형 작업에 도입함으로써 조형화 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소립자의 배열로서가 아닌 조합된 자연의 유기적 질서는 계절마다 우리에게 그 모습을 달리하며 보여주고 있다. 자연의 유기적 속성을 우리가 쉽게 접하며 볼 수 있는 여름철의 대표적인 것은 과일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작품의 과일 형상은 개체가 아닌 조합을 통한 자연의 유기적 속성을 현대조각의 이미지로 구현한 것이다.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삶을 영위하며, 유기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고귀한 정신을 구현해왔다. 그러므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관계 속에서 예술의 조형적 본질을 탐구할 때 예술의 진정한 목적에 합일될 수 있다고 본다.

본인의 작품은 “만들어진 과일” 연작에 관해 탐구하고 분석한 것으로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I 장의 서론은 본인의 작품에 대한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제 II 장의 본론은 3절로 구성되었으며, 제 1절은 조형이론에 토대가 되는 유기적인 조합의 미학적인 개념을 간략히 서술함으로써 본인의 조합기법의 인식적 토대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제 2절의 조형의 형태적 표현은 도입된 형태와 표현된 형태로 나누어 조합에 의한 확산된 조형의 이미지를 설명하였다. 제 3절의 작품분석에서는 본인의 조형적인 작품과정을 제작과정, 재료, 기법적인 부분으로 기술하여 정리하였다.

제 III 장 결론에서는 본 작품의 이론적인 인식적 토대와 조형적인 이미지 간의 차이를 정리하고 향후 본인 작품의 연구와 진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이론적 바탕	3
(1) 개체와 조합	3
(2) 집합의 조형성 인식	4
2. 형태적 표현	6
(1) 도입된 형태	6
(2) 표현된 형태	7
3. 작품분석	9
III. 결론	21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만들어진 사과 I 0603 12
1600×1600×1400mm, Steel, 2006
- 【작품 2】 만들어진 사과 II 0605 14
지름 300~900mm, 가변설치, Stainless Steel, 2006
- 【작품 3】 만들어진 바나나 0606 16
700×850×220~1000×1100×1250mm, 가변설치, Stainless Steel, 2006
- 【작품 4】 만들어진 수박 0605 19
1300×300×1100~1300×1300×1600mm, 가변설치, Stainless Steel, 2006

I. 서론

근대로 접어들면서 인류는 분석의 방법을 통해 자연의 본성을 파악하고, 이를 인류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결과적으로 분석의 방법은 18세기 후반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달과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고, 그 안에서 인류사회가 그 이전에 없었던 풍요를 누리며 생존율의 증가와 생명의 연장을 실현하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이전 세대가 누렸던 쾌적한 자연환경은 점점 사라져가고, 공기와 수질의 오염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불안한 환경으로 변모된 것도 역시 사실이다. 그럼으로써 사막의 증가와 빙하의 용해, 오존층의 파괴가 단적으로 보여주듯 자연은 점차적으로 그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듯 인간은 활동을 통해 자연과의 공존하기 보다는 움직일수록 인간이 숨 쉴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은 인간이 자연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인식적인 토대, 즉 분석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려 한 근대적 패러다임¹⁾에 근본적인 오류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근대를 지나 20세기 이후의 현대 과학자들은 분석적인 방법으로만 결코 자연의 본성을 이해할 수 없다고 시인하고 있다. 자연의 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 패러다임(paradigm)의 문법용어는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예, 범례, 모델을 의미함. 용어가 학문 연구의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과학자 토마스 쿤(kuhn, Thomas.S)이 그의 역저<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적 사고와 과학혁명의 구조를 다루기 위해 사용하면서부터이고 여기에서의 개념은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련의 사고방식'이며,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진 해결책,' '합의된 의견일치'라는 의미로 해석함. 따라서 패러다임의 전환은 인식의 본질적인 틀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개체가 조합을 이룰 때 나타나는 유기적 질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총체적인 관점에서 수많은 개체들이 조합을 이룸으로써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 자연의 본성을 제대로 인식할 때에만 자연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렇게 자연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하며 인간의 미래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적 패러다임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본인은 작품을 통한 새로운 조형적인 형상으로 자연의 본성을 표현하면서 현대사회와 자연의 공존을 새로운 조형이미지로 탐구하고 하였다. 조형의 방법은 개체가 모여서 조합을 이룰 때 나타나는 새로운 질서, 즉 자연의 유기적 본성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조형적으로 구현하려고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체가 조합을 이룰 때 확산되는 조형성에 대한 인식적인 토대를 설명하는 데에 있으며, 작품의 재료, 표현방법, 작업 과정 등을 통하여 조형적인 이미지가 구축되는 과정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이론적 바탕

(1) 개체와 조합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던져왔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고대의 일부 철학자들이나 근대의 과학자들은 전체를 몇 개의 단순한 요소로 분해하고, 그것들의 성질을 밝히는 일에 힘을 쏟아왔다. 이러한 분석은 근세의 철학자인 데카르트²⁾의 철학적 인식에서 잘 드러난다. 그의 '방법서설'³⁾의 언명에서 "자신이 연구하려는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려면, 필요한 만큼 되도록 작은 부분으로 나눌 것"⁴⁾이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인식적 토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데카르트의 방법론은 20세기에 들어 상대성 이론⁵⁾, 양자역학⁶⁾,

2) 데카르트 (Rene Descartes, 1596~1650): 프랑스 트렌라에 출생. 근세사상의 기본틀을 처음으로 확립함으로써 근세철학의 시조로 일컬어진다.

3) 데카르트의 이 저서는 무엇보다도 '방법의 이야기'이다. 그것도 자기 자신의 학문적 생애를 이야기한다는 형식을 취하여 학문연구의 방법과 형이상학·자연학의 개요를 논술한 것이다. 결국 기성권위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두뇌로써 사물을 사고(思考)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좇아야 하는가를 스스로 탐구해 온 저자의 정신역사를 솔직하게 논술하였다. 이 방법에서 인도되어 소위 방법적 회의(懷疑)에 이른 끝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증명인식에 도달한다.

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철학대사전』, 동녘, 1989 p. 272에서 재인용

5) 아인슈타인이 만든 이론으로 등속도로 운동하는 관측자에 대해서는 모든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말한다.

6) 양자론의 기초를 이루는 물리학이론의 체계이다. 원자, 분자, 소립자 등의 미시적 대상에 적용되는 역학이다.

괴델의 불완전성⁷⁾ 정리 등에 의해 근본부터 재고되었다. 자연은 원소의 단순한 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개체가 조합을 이룰 때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며 질적인 변환을 가져온다는 점을 도외시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원자를 안다고 해서 분자를 안다고 할 수 없으며, 분자 수준의 분석이 끝났다고 해서 유기체의 생명력을 이해할 순 없다. 사람을 안다고 해서 사회를 이해할 순 없으며, 나무를 안다고 해서 숲을 이해할 순 없는 것이다. 즉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부분-개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현대 과학은 환원주의⁸⁾를 극복한, '세분화'가 아닌 '통합'된 시각으로 자연 전체를 조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집합을 바라볼 때 부분의 합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전체로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개체가 조합을 이룰 때 나타나는 유기적 질서, 그 자체를 온전히 바라볼 때에만 자연의 본성에 접근할 수 있음을 현대 과학은 역설하고 있다.

(2) 조합의 조형성 인식

자연의 형상은 복잡하고 불규칙하다. 구름이나 번개, 바다 속의 산호, 각양각색의 나뭇가지 등등, 이렇게 다양한 형상에서 어떤 공통성이나 법칙성을 찾아낼 수는 없다. 이러한 자연계의 법칙은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혼돈과 같은

7) 대부분의 논리학자들은 주어진 수학적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침이 있다고 믿었다. 즉, 참인 모든 명제는 증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괴델은 산술을 형식화한 형식체계에서 그 체계가 무모순적인 한,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문장(논리식)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고 하였다.

8) 환원주의란 모든 현상을 하나의 기본원리(또는 공리)에 의해서 설명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신만의 기본원리에 입각해서 모든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환원론자라고 할 수 있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철학대사전』, 동녘, 1989)

상태이지만 그 자체로 새로운 질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자연계의 형상은 겉으로는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놀라운 규칙성을 갖고 있는 세계인 것이다.

나뭇가지를 보면 부분은 전체와 닮아 있다. 강줄기를 보아도, 산맥의 모습을 보아도, 구름을 보아도, 번개를 보아도 일부를 보면 전부와 닮아있다. 무질서한 듯이 보이는 자연은 내부에서는 하나의 모습처럼 보이는 조직성을 갖추고 있다. 만델브로트⁹⁾는 이러한 자연의 형상을 통일적인 관점에서 설명했는데, 바로 자연은 통계적인 자기닮음의 성질을 지닌 '프랙탈¹⁰⁾'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계가 자기조직성을 갖춘 형상이기에 개체와 조합의 관계는 새롭게 규정되어야 했는데 그 개념이 바로 '홀론(holon)'¹¹⁾이다. 홀론은 그리스어인 홀로스(holos : 전체, 집합체)와 온(on : 부분, 개체, 입자)이 합성된 신조어이다. 가령 모든 물질은 분자의 집합체(aggregate)이며, 분자는 원자의 복합입자(compound particle)이다, 생명체에서도 한 기관은 세포들의 집합체이지만 단순한 합이 아닌 새로운 질서를 부여받은 전체인 것이다. 또 이 기관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개체이지만 기관들이 집합되어 새로운 질서로 조직되면 하나의 생명이라는 전체를

9) 만델브로트(Mandelbrot, 1975) 1960년대 말 프랑스 수학자, 그는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자연물에도 존재한다는 위대한 발견과 함께, 자기 유사성이란 많은 자연물 (예를 들면 나뭇잎, 해안선의 형태, 우리 몸속의 기관지, 구름 모양, 은하 구조 등)의 부분을 확대해 보면 전체 모습과 본질적으로 닮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철학을 제시한 것이다.

10)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의하면, 프랙탈이란 지금까지 과학자가 사용해온 곡선이나 곡면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자연 속에 있는 복잡한 형상들, 이 울퉁불퉁한 상태를 밝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전체와 부분을 내재하는 유사성은 만들어 내는 객관적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불규칙적인 세부나 무늬가 전자적으로 더 작은 크기로 반복되고 순수하게 추상적인 것의 경우 무한히 계속 반복하여 각 부분의 부분을 확대하면 전체 물체와 근본적으로 같게 된다.

11) 홀론은 커스틀러(Koestler, A.)가 제창한 말이다. 생물은 부분으로서 전체의 구성에 관여하는 동시에 각각이 하나의 전체적·자율적 통합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이론다.

홀론은 이렇게 자연의 본성을 잘 드러내는 개념이기에 사회학이나 심리학, 언어학 분야에서까지 홀론에 의해 모든 현상을 재인식하려는 시도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홀론의 개념을 본인의 작품에서 조형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개체의 조합을 통한 조형 작업을 선택함으로써 자연의 유기적 본성을 이미지화하여 재현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의 근원적 가치를 드러냄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새로운 관계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형태적 표현

(1) 도입된 형태

본인의 작품의 주된 표현 형태는 유사한 형태의 반복적 행위로 조형화한 것이다. 무작위로 잘려진 조각은 구체적 모양이 없는 절단방법으로 잘려진 것으로서 인공적인 재료에 자연의 형상이미지들을 재현하여 인위적인 것을 벗어나 자연의 질감을 느끼게 한 것이다. 또한 선의 미묘한 변화와 형태들의 반복을 통해 작품에 자연적인 리듬을 부여하고 조용하고 느리지만 은근하게 움직이는 생명력을 표현하였다. 무작위로 잘려진 조각의 선은 자연을 상징하는 형태로서 기하학적으로 정제된 직선 또는 곡선과 대비되는 의미를 지닌다.

무작위로 잘려진 조각의 선은 근대이후의 조형적인 인식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상징화한 것이다. 분석을 통해 인간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즉 복잡한 자연의 전체 형태를 단순화하고 기하학적으로 정제해왔다. 그러한 자의적인 해석의 결과로 직선, 다각형, 원 등의 기하학적 형태가 인간 문명의 모습을 대변하게

되었다. 일례로 인간이 경작하기 쉽게 논과 밭을 사각으로 정리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에 의해 구획된 것에 불과하다. 단순화된, 추상화된 기하학적 형태는 자연의 본성이 아니며, 자연은 단순한 형태로 환원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조형 작업에서의 무작위로 자른 조각의 선의 도입은 자연을 대상-수단으로 삼아왔던 현대 문명에 대한 반성으로, 자연의 본 모습을 존재 그 자체-목적으로 바라보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본인의 조형 작업은 철 혹은 스테인레스 스틸 판을 잘게 조각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 자르는 과정에서 손의 각도, 미세한 힘의 차이 등이 우연적 요소로 개입해 다양한 자유 곡선이 나타나게 된다. 때문에 잘라낸 조각들은 모두 비슷한 형태이면서도 똑같은 모습은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유사하지만 개별성을 가진 개체로서의 형태, 즉 자연을 이루는 구성요소의 모습을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철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 판을 조각내는 것은 인위적인 물질을 조각내는 행위로서 그 간의 인류 문명, 즉 자연을 대상화하고 분석하려한 패러다임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의 작품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 및 주된 표현 형태의 도입은 존재 그 자체로 자기완결성을 지니는, 자연의 생명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2) 표현된 형태

본 작품의 조형적 형상은 자연계 안에서 작은 개체들이 모여서 큰 덩어리의 조합이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는 모습을 표현하려 한 것이다. 포도송이, 모래언덕, 산맥 등 개체와 개체의 결합이 서로를 보완하고 의존하는 관계로 맺어지고 있는 자연계의 유기적인 모습을 조형작업으로 구현하려 한 것이

다.

주된 재료인 철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의 이미지는 작은 조각일 때 하나하나의 조각으로는 힘이 없지만 계속해서 조각판을 붙여 나가는 동안 덩어리를 이루게 되면 단단함과 강인한 힘을 보여준다. 특히 철과 스테인레스 스틸은 현대 산업의 부산물로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이다. 매끄러운 표면과 이미지가 분명한 윤곽선이 구체적인 실루엣을 드러내면서 현대도시의 외견적 특징 즉 현대적, 세련됨, 반듯함과 차가움, 화려함, 기계적인 것 등을 상징하기에 인간의 손에 의해 도식화되어 가는 도시를 상징하는 데에 적합한 재료라고 본다.

이렇게 질료를 선택하고 그것을 조합적인 방식으로 조형화하는 데에서는 자연의 셀 수 없는 유기적인 모임, 관계 속의 관계를 반복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각기 다른 조각들이 하나하나 자율성을 지니면서도 붙임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개념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조형적인 이미지는 개체가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전체를 이루는 근본적인 힘으로도 작용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체의 군집화는 자연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 그대로인데, 하나하나의 개체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이를 계속 반복하는 동안 개체가 모여 조합을 이루면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며, 새로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즉 본인의 작품의 조형성은 개체가 모여 조합을 이루면서 생명력을 발휘하는 자연의 유기적 본성을 형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형화 작업의 구체적인 형태로 과일을 택한 이유는 과일이 계절을 대변하는 재료로서도 적합한 데 있지만, 또한 과일마다 각자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조형성이 자유로운 창의력을 유도하기에 알맞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과일이 갖는 무한한 형태의 변화와 색채는 자연이 가진 생명력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과일이 가지는 상징성 역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 과일은 동물과 공존

하고자 하는 자연의 지혜를 가장 잘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데에 있다. 이는 좀 더 확대해석해 보면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서로 공존해야 하는 지를 일깨워주는 자연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과일들은 산과 들에 자생하며 인류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과일이 내포하고 있는 이미지는 풍성함, 여유, 낙관적 전망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작위로 잘려진 조각의 선을 통해 자연의 유기적인 본성적 특성을 도입하여 과일의 형상적 질서를 창조적으로 재현하려고한 시도는 자연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으며 그 안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제작의도의 조형적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인은 작품을 통해 현대 도시의 인공적인 물질들로 자연을 그 자체의 조합적 질서에 따라 재현해봄으로써 자연의 유기적 본성을 이해하고 이후 자연과 인간이 지속적으로 공존할 수 있음을 과일이 가지는 상징성을 통해 표현하고자한 것이며, 이러한 의도를 하나하나의 개체들을 조합하여 조형성을 확산시킴으로써 작품의 조형적 이미지로 구현한 것이다.

3. 작품 분석

본인의 작품은 자연의 유기적인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개체와 조합의 관계를 조형이미지를 통해 다양하게 표현해보고자 한 것이다. 제작방법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데 일단 재료를 무작위적이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길이로 자르고 이를 하나씩 용접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는 작품을 제작하는 데에 주된 요소가 된다. 그리고 작품의 조형적인 형태를 구축하는 데에는 처음 시작점을 중심으로 계속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방법으로, 즉 마치 하나의

개체가 자가 증식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의 생명체를 지닌 전체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일정하게 정해진 형태를 몇 번이고 되풀이함으로써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보는 이로 하여금 본인의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작품들에서 보여지는 분절된 조각 형태들은 다양한 조합방법을 통하여 구조화된 결과물이며, 또한 시각적인 형태에서 새로운 공간의 확장구조를 조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품에서 작품의 주된 요소는 작품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조각으로 제작되어진 개체들이 리듬감 있는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생명의 신비, 에너지를 표출하는 기본 요소를 표현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반복된 이미지는 보는 이로 하여금 어떤 자극을 주어 전체이미지로 통합시킴으로써 이러한 본인의 의도를 전달할 것이다.¹²⁾

이런 과정을 통해 조각난 철 혹은 스테인레스 스틸 판들은 이제 하나의 자연물로 다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다. 즉, 반복을 통해 개체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통합되면서 새롭게 부여된 질서와 조화를 보여주는 것이며, 개체가 조합에 의하여 새로운 유기적 질서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재료의 조형기법을 살펴보면 작업의 주재료는 스테인레스 스틸이다. 스테인레스 스틸은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작품의 주제를 부각시키는 데에 적합한 재료이다. 그리고 재료의 특성상 절단, 연결, 접합을 통해 다양한 구성적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광택으로 처리하여 빛의 반사효과도 첨가한 표면 처리는 작품의 주제를 한층 더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표면에서 빛나는 빛의 효과는 흡수, 반사 작용을 통하여 우리의 감각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도 하며 사물이 마치 조화를 이루는 운동감을 지닌 것으로 우리의 인상에 각인시키기도 한다. 특히 전시에서 빛은 작품의 효과를 한층 극대화시키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테인레스 스틸 판에 조명을 비추면 빛의 반사가 이뤄지며 물질 자체

12) 김춘일, 박남희 공저, 「조형의 원리와 분석」, 서울; 미진사, 1991

의 촉각적 특성을 부각시키고 보는 각도에 따라 색조의 변화를 일으켜 다양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 그라인더를 사용한 광택 처리이다.

빛은 본인의 작품에서 작품 주변의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듯한 요소로 기능함으로써 작품의 조형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는 작품을 구성하는 개체의 요소들이 난반사를 통해 빛의 확산을 이루기 때문이다. 빛은 본인의 작업에서 조합이라는 조형적 방식에서 생명성이라는 이미지를 재현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또한 현대조각의 조형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에 새롭게 연구할만한 가능성의 충분한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작품1】 - 만들어진 사과 I 0603

【작품1】 만들어진 사과 I 0603

크 기 : 1800×1800×1650mm

재 료 : Steel

제작년도 : 2006

제작방법 : 철 환봉으로 사과와 형상 뼈대를 만든 후, 조각 조각난 고철을 특수 아르곤 용접으로 붙인다. 표면처리는 염화철 부식액을 분무기로 뿌려 부식시킨다.

본 작품은 주변 환경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버려진 고철더미를 모아 그것을 사과와 조형적인 형태로 용접하여 이미지화한 것이다. 버려진 고철더미는 인간에게는 단지 쓸모없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자연은 오랜 시간 이를 분해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즉 사과와 조형적인 형상은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며, 버려진 조각들의 조형들은 그러한 자연의 생명력을 볼 수 없는 인간의 시선과 대비되어 표현된 것이다.

작품의 조형적 틀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조각은 버려진 고철더미를 모아서 있는 그대로의 모양으로 용접하여 그 형태가 무작위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근대의 조형적인 인식적 패러다임이 되는 기하학적인 형태와 대조되는 비기하학적인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자연의 유기적 질서를 표현하는 새로운 조형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사과의 조형적인 형상은 하나하나의 개체가 자기조직성을 갖추면서 조합되어 생명력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시화되는 순간을 표현하여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이 작품은 본인이 하나의 개체가 자기 조직성을 지니면서 전체로 조합해가는 것이라는 자연의 유기적 본질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한 것이기도 하다.



【작품2】 - 만들어진 사과 II 0605

【작품2】 만들어진 사과 II 0605

크 기 : 지름 300~900mm, 가변설치

재 료 : stainless steel

제작년도 : 2006

제작방법 : 사과와 형상을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으로 뼈대를 만든다. 도면 작업에 의해 스테인레스 스틸 원판을 레이저 커팅 한 후, 조각 조각난 스테인레스 스틸 판을 특수 아르곤 용접으로 붙인다. 표면처리 는 전체적 통일감으로 그라인더로 광택 처리하여 마무리한다.

이 작품은 사과를 깎은 조각조각의 형태를 보면서 개체와 조합의 개념을 조형화한 것이다. 이 작업은 버려진 고철더미를 통해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한 <만들어진 사과I>과는 달리 스테인레스 스틸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붙여가면서 사과의 조각난 형상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자 하였다.

스테인레스 스틸의 매체는 사과의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선과 풍만한 형태를 표현하는 데에 적합한 재료라고 여겼으며, 스테인레스 스틸의 매끄러운 표면은 사과의 조형적인 특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모두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은 사과의 모습과 깎아 놓았을 때의 여러 형상들은 자연의 유기적 본성을 나타내는 개체와 조합의 개념을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어 조각 조각난 사과와 개체들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은 <만들어진 사과I>과는 달리 공간에 빛을 흩뿌림으로써 나무에 매달려 햇빛을 머금으며 그 생명력을 잉태한 자연의 사과를 재현함으로써 생명력이 넘치는 사과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할 것이다.



【작품3】 - 만들어진 바나나 0606

【작품3】 만들어진 바나나 0606

크 기 : 700×850×220~1000×1100×1250mm, 가변설치

재 료 : stainless steel

제작년도 : 2006

제작방법 : 바나나의 형상을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으로 뼈대를 만든다. 도면 작업에 의해 스테인레스 스틸 원판을 레이저 커팅 한 후, 조각 조각난 스테인레스 스틸 판을 특수 아르곤 용접으로 붙인다. 표면처리는 전체적 통일감으로 그라인더로 광택 처리하여 마무리한다.

이 작품은 바나나 껍질을 벗겼을 때의 껍질의 안쪽에는 복잡하면서도 규칙적인 선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조형화한 것이다. 이 작업은 앞선 두 작품들과는 달리 개체와 조합의 개념을 바나나라는 조형이미지를 통해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다.

남국의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바나나는 사과와는 다른 토양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나나의 조형적인 형태들은 사과와는 달리 또 다른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비유기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통합되어진 조합은 사과와 같이 동일한 생명력을 잉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체와 조합의 개념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게 한다.

<만들어진 사과II>와 마찬가지로 바나나의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테인레스 스틸을 이용하여 표면의 매끄러움과 빛이 공간에 반사되도록 하였다. 껍질이 벗겨진 알맹이는 인간에 의해 벗겨진 자연을 상징하는 것으로써 인위성과 자연성의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다.

알맹이의 표면은 바나나의 겉의 표면과는 달리 색이 변질된 모습을 보여줌

로써 자연의 생명력이 박탈된 모습을 상징화한 것이다. 알맹이의 층층이 켜진 선들은 도시의 고층빌딩을 연상시키며, 알맹이의 시커먼 색은 인간에 의해 개발된 도시 지역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이 작품은 바나나라는 과일을 통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해 현대조각의 이미지로 조형화한 것이다.



【작품4】 - 만들어진 수박 0605

【작품4】 만들어진 수박 0605

작품크기 : 1300×300×1100~1300×1300×1600mm, 가변설치

작품재료 : stainless steel

제작년도 : 2006

제작방법 : 수박의 형상을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으로 뼈대를 만든다. 도면 작업에 의해 스테인레스 스틸 원판을 레이저 컷팅 한 후, 조각 조각 난 스테인레스 스틸 판을 특수 아르곤 용접으로 붙인다. 표면처리 는 전체적 통일감으로 그라인더로 광택 처리하여 마무리한다.

이 작품은 앞선 작품들과는 달리 작품의 이미지를 조형화하는 과정에서 개체와 조합이라는 개념이 가장 닳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에 개체와 조합의 개념을 전달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도와 조형적인 이미지가 잘 부합하고 있어 조형이미지를 제작하는 데에 있어서 한층 흥미를 주었던 작품이다.

수박의 조형적인 이미지들은 언뜻 무질서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연의 본래적인 속성인 자기 닮음의 모습이 무한히 확장되는 듯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 혼돈된 듯이 보이지만 일정한 질서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자연계에 나타나는 프랙탈(fractal)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수박의 껍질에서 느껴지는 이러한 조형성을 작품에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도 <만들어진 사과II>나 <만들어진 바나나 0606>과 마찬가지로 스테인레스 스틸을 이용하여 표면의 매끄러움과 공간에 빛이 반사되도록 함으로써 수박이 지닌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하였다.

Ⅲ. 결 론

조형 예술가는 단순히 주변 환경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세계에 있는 주관적인 체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술적 동기로 변화시키고, 그러한 인식을 형상화하는 것이 본질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본 작업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탕으로 내면의 미의식을 통해 독창적인 조형언어를 창출하려 하였다.

본 연구의 작품들은 자연을 소재로 삼으며 자연이 갖고 있는 본래의 성질과 작가가 조형화할 수 있는 의도적 형식을 통해 도시와 자연과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던 결과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체들이 모여 조합을 이루는 방식으로 제작된 본인의 작품에 대하여 서술함으로써, 개체가 모여 조합을 이루는 자연의 유기적 질서에 주목하고 그 조형성을 확산시킴으로써 현대조각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는 개체의 조합을 통한 조형 작업이 자연의 본성을 재현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고자 한 작업의도와 부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끝으로, 조합을 매개로 하는 본인의 작품의 조형성은 형태, 재료, 과정 등에서 새로운 시도와 연구가 지속될 때 더욱 다양한 조형언어로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러므로 좀 더 깊이 있는 실험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봉규 외, 『환경과 인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6.
- David A. Lauer, 『조형의 원리』, 이대일 역, 열화당, 1979.
- F.W.J Schelling, 『조형 미술과 자연의 관계』, 심철민 역, 책세상, 2002
- 김춘일, 박남희 공저, 『조형의 원리와 분석』, 서울: 미진사, 1991.
- 김수평, 『조형의 원리』, 서울: 대한성공회출판부, 1992.
- Curt Friedlein, 『서양 철학사』, 강영계 역, 서광사, 1985
- Ernst Fischer, 『예술이란 무엇인가』, 김성기 역, 돌베개, 1984
- Moissej Kargan, 『미학강의』, 진중권 역, 새길, 1989
- 김용운, 김용욱 공저, 『프랙탈과 카오스의 세계』, 도서출판 우성, 1998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철학대사전』, 동녘, 1989

ABSTRACT

A Study on the Image of Modern Sculpture that Mixing Technique is introduced

- Centering around My Work -

Hwang, Nam Jin

Sculpture Major

Dept. of Plastic Arts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To see fine art history\ human beings have investigated the original form of nature. On the contrary, modern science which developed after Renaissance says that nature is composed of independent atom like elementary particle. But, all the forms of nature are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c arrangement of elementary particles such as sun and moon, plant and animal, and rock and human beings.

As distinction between coal and diamond is made according as how carbon atoms are arranged organically, nature is not the simple total of individual elements. That is, it can be said that it is the true character of nature that new order is given when mutually different individuals gather and form mixing.

I have taken interest in this organic true character of nature and have observed that plastic nature may be spread with new concept infinitely in the course to form work-mixing by mixing material-individuals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ion of artist in molding work.

My works created in 2006 which are presented in this thesis were manufactured with the method to embody the plastic form of nature by making iron or stainless steel board into pieces and through the mixing or individuals to have the thin surface. That is, it can be said that it is to investigate the organic order of nature with molding, making one mixing of individuals of pieces through welding.

In other words, my work may be said as what was made into molding by introducing the organic attribute of nature in molding work with the image of modern sculpture that mixing technique is introduced.

Mixed organic order of nature which is not the arrangement of elementary particle varies the form in every season and shows the form to us. As for the representative thing of summer that we may contact and see the organic attribute of nature easily, fruit may be enumerated.

Thus, the fruit form of this work is what materialized the organic attribute of nature through mixing which is not individual with the image of modern sculpture. Human beings have led life with nature and have materialized our noble spirit in organic relation. Therefore, it is deemed that investigating the plastic essence of art in the relation that human beings and nature co-exist may be united with the true goal of art.

My work is what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repeated work, "made

fruit". Then, it is composed of 3 chapters.

In the introduction of chapter I, this researcher presented study goal and study method about my work.

Main discourse of chapter II is composed of 3 sections. And, in the section I, describing the aesthetic concept of organic mixing to be the base of molding theory briefly tried to explain my cognitive base of mixing technique. In the formal expression of molding of section 2, this researcher explained the image of molding which is spread by mixing by classifying into introduced form and expressed form. In the work analysis of section 3, this researcher arranged my plastic work course by describing with manufacture course, material and technical part.

In the conclusion of chapter III, this researcher arranged the difference between theoretical cognitive base of my work and plastic image and tried to present future my work study and progression direction.